

## 좋은 전략을 위한 두 가지 기준 TWO GUARDRAILS FOR EVERY GOOD STRATEGY

By Stephen R. Graves

보통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할 때만큼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신중함과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좋은 전략이 세워집니다.

Usually, voices in your head are not a good thing, but I have learned about two that are reliable. For planning and strategy, two "voices" we should listen to – in balance – are thoughtfulness and humility.

**신중함.** 신중함이란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충동적이거나 피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고 폭넓게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비용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가복음 14:28-30)

**Thoughtfulness.** The main idea is: *Do not be impulsive and superficial in the planning and pursuit of your vision. Instead, be thoughtful and comprehensive.* We see this modeled in the life of Jesus Christ. Early in His ministry, Jesus used the phrase, "count the cost," as He was teaching and training His disciples: *"Don't begin until you count the cost. Who would begin construction of a building without first calculating the cost to see if there is enough money to finish it? Otherwise, you might complete only the foundation before running out of money, and then everyone would laugh at you"* (Luke 14:28).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소규모 농부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 망대를 세우는 일을 예로 드셨습니다. 아마도 기존 건물에 부속 건물을 증축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략적으로 큰 변화를 시도하고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전에, 초기 비용뿐 아니라 모든 비용을 충분히 계산해 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많은 관리자와 경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인간은 과신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비즈니스 전문가의 99%가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Jesus, speaking to small farmers, used the illustration of building a tower – probably adding a side building onto an existing structure. He was cautioning that before making a major jump in strategy and committing lots of resources, evaluate the cost – all the costs, not just start-up costs. This is an idea managers and executives often struggle with. David Brooks wrote, "human beings are overconfidence machines," citing a study in which 99% of business professionals overestimated their success.

흔히 많은 기업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은 단거리 달리기에는 강하지만 마라톤에는 약하다는 말을 합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면 새로운 시장 진출, 완벽해 보이는 인재 채용, 인수합병 기회와 같은 기회를 붙잡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곧 자신이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전에 대한 열정은 넘치지만, 100 미터도 채 가지 못해 힘이 빠지고 맙니다.

It has been said that many business and professional people are great sprinters but horrible marathoners. The gun goes off and we sprint frantically,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a new market to step into; a seemingly perfect hire; an acquisition possibility. Then we realize we are making a strategic shift far riskier than expected. We have great vision enthusiasm, but we sputter out after 100 yards.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될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난 후 이 결정을 충동적인 선택이었다고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나와 다른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볼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과 대화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중요한 결과를 얻으려면 그에 걸맞은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언 21:5)*

We need to ask questions like: What resources will I need to see this venture through? What obstacles might I face? Will I look back and call this an impulsive decision? Who would see things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and what could I learn from talking with them? Consequential outcomes require consequential input. We must invest the time to make wise decisions: *“The plans of the diligent lead surely to advantage, but everyone who is hasty comes surely to poverty”* (Proverbs 21:5).

**겸손함.** 신중함과 충분한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이에 균형을 이루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지나치게 확신하거나 교만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라"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잘 세운 계획이라도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Humility.** There is a counterweight to all this talk of comprehensiveness and forethought: *Do not be presumptuous and arrogant about your self-contrived plans. Instead, be humble and reverent.* Just as Jesus exhorted His listeners to “count the cost” before finalizing plans, we should remember even finalized plans are never set in stone.

이러한 원리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으로 가득한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비용을 계산하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4:14-16)

We see this plainly in the New Testament’s book of James, which is so real world and immediate in its teachings. Toward the end of the book, a paragraph gives us the corresponding other bookend to Jesus’ “count the cost” message: *“Look here, you who say, ‘Today or tomorrow we are going to a certain town and will stay there a year. We will do business there and make a profit.’ How do you know what your life will be like tomorrow? Your life is like the morning fog – it’s here a little while, then it’s gone. What you*

*ought to say is, 'If the Lord wants us to, we will live and do this or that.' Otherwise you are boasting about your own plans, and all such boasting is evil" (James 4:14-16).*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버릇처럼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든 막으시든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어야 합니다. 신중함이 없는 겸손은 감정에 치우쳐 결정을 내리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리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이 없는 신중함은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리더를 만들어 냅니다. 좋은 리더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Everything we do should be under the banner of "the Lord willing." Not just a lip-service, "Lord willing," but a heartfelt, "God is good, and if He chooses to advance my cause or if He chooses to block it, He is still good." Humility without thoughtfulness creates leaders who make decisions with an unhealthy weight of emotion and leaders who do not finish things. Thoughtfulness without humility produces leaders who cannot handle failure and have no empathy. It takes both.

## **묵상과 토론**

###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충동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Have you ever had an impulsive idea and responded to it, only to later regret what you did? What was that situation like – and what were the consequences you encountered?

2.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계산하며' 신중하게 결정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첫 번째 질문에서 나눈 경험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Think of a time when, instead of acting hastily, you chose to be thoughtful, "counting the cost" as Jesus taught. Compare the outcome of that circumstance with the impulsive action you described in the first question.

3. 글에서는 신중함과 겸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t is suggested that we balance *thoughtfulness* with *humility*. How do you understand what it means to do this?

4.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함과 겸손은 어떻게 함께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es it mean to make decisions and take strategic actions in light of being aware that what God wills might be different from what we want to happen? Explain how you see both thoughtfulness and humility working together in this context.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잠언 20:21, 28:22; 로마서 2:6-8; 고린도전서 4:1-2; 히브리서 13:17; 베드로전서 4:10**

Proverbs 20:21, 28:22; Romans 2:6-8; 1 Corinthians 4:1-2; Hebrews 13:17; 1 Peter 4:10

- **(잠언 20:21)** 21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 **(잠언 28:22)** 22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 **(로마서 2:6-8)**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 **(고린도전서 4:1-2)**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 **(히브리서 13:17)** 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 **(베드로전서 4:10)**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현재 여러분 앞에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중요한 결정이나 전략이 있나요? 조급하게 행동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주에는 '신중함'과 '겸손'이라는 두 가지 목소리가 여러분의 결정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Are you presently facing an important step or strategy that requires thoughtfulness, being aware that acting with haste could prove very costly? This week consider how these two “voices” – thoughtfulness and humility – could be good tools for guiding you to the right decision.

또한 신중함과 겸손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기꺼이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여러분과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믿을 만한 친구나 멘토, 조언자, 책임 동역자 또는 CBMC 모임의 회원들에게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과 조언을 구해 보십시오.

It was noted that both thoughtfulness and humility can involve a willingness to consult with others and receive their perspectives, which might be very different from yours. Invite a trusted friend or advisor, mentor, accountability partners or your CBMC group to offer their feedback on the issue you are facing.